전등사 '게이트볼 대회'…"어르신 건강 책임"

올해로 20회 맞은 '장수' 대회
64개 팀 400여 명 선수 출전해
무학팀 우승 · 덕포팀 준우승 차지
무료 한방진료 · 발마사지 부스도

강화=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이 제20회 전등사기 게이트볼 대회서 시타를 하고 있다.

"내가 우리 동네 게이트볼 1등이야! 잘 봐, 들어간다."

차분히 스윙 자세를 잡는 어르신의 눈빛에 긴장과 설렘이 가득하다. 한참 거리와 각도를 재던 끝에 채를 휘두르는 순간, 공이 게이트를 정확히 통과한다.

"첫 득점이요!" 심판의 외침에 주변에선 환호와 박수가 쏟아진다. 어르신도 참았던 숨을 내쉬고 얼굴엔 미소가 번진다.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가 4월 8일 강화 길상면 공설운동장에서 '제20회 전등사기 강화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전등사가 지역 어르신들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해마다 개최하는 게이트볼 대회는 올해로 20회를 맞아 그 의미를 더했다.

대회 개막식에는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과 화개사 주지 원준 스님, 박용철 강화군수, 배준영 국회의원,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 유춘규 강화군게이트볼협회장, 윤재상 인천시의원 등 500여 명 참석했다.

여암 스님은"어르신들이 외로우면 방에만 계시게 되고 자연스레 체력도 떨어지게 된다"며 "게이트볼은 공을 게이트에 넣기 위해 집중해야 하기에 건강은 물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이날만큼은 그라운드에서 함께 어울려 노는 잔칫날이 되길 바란다"며 "전등사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과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선수 어르신들은 대회 규칙을 준수하고 심판의 판정을 존중하며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각 6명으로 구성된 64개 팀, 총 384명의 어르신이 경기에 참가해 실력을 겨룬 끝에 교동 무학팀이 우승, 화도 덕포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전등사는 참가자들에게 기념모자 1000개를 선물했고, 전등사 신도회에서는 국밥, 어묵탕, 부침개, 떡, 과일 등을 정성껏 준비해 점심으로 대접했다. 경기장 한편에서는 동국대 일산병원의 무료 한방진료, 주재희 약손봉사단의 발마사지, 강화소방서의 안전교육 부스를 운영해 어르신들의 편의를 세심히 살폈다.

참가 어르신들은 전등사의 게이트볼 대회가 "매년 기다려지는 봄 축제"라고 평가했다. 1회 대회부터 꾸준히 참가해 온 이봉섭(85) 어르신은 "경기 결과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얼굴 보고 웃는 게 참 반갑다. 좋은 추억 만들어준 전등사에 고맙다"고 말했다.

내소사 선대조사·해안 선사 원력 기리다

선대조사, 해안 선사 추모제
진성 스님 "수행 정진 다짐"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 스님)가 해안 대선사 51주기인 4월 4일 경내 부도전과 대웅전에서 선대조사 다례재와 추모제를 봉행했다.〈사진〉

조계종 초대 어장 원명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선대조사 다례재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조사스님들의 수행 정신과 전통 선맥을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다례재에는 내소사 봉래선원장 철산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원로 범여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 참당선원장 법만 스님,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해안문도 스님들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진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내소사가 수행 도량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역대 조사스님들의 가르침과 원력 덕분"이라며 "그동안 주지 소임을 맡아 최선을 다했지만 많이 부족했다. 임기 후에도 역대 조사스님들과 노스


님의 추모재를 모실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교구장 스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사부대중은 "오늘 다례재를 문도 화합과 승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정진의 토대로 삼겠다"며 "불조의 혜명을 더욱 굳건히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해안 스님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1914년 내소사에서 만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1917년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32년 계명학원을 설립해 문맹퇴치 운동을 전개했으며, 1936년 금산사 주지를 역임하고 1969년 불교 전등회 대종사로 추대됐다. 1974년 세수 74세, 법랍 57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茶시배지 쌍계사, '차문화축전' 연다

4월 17~20일 경내 일원

쌍계총림 하동 쌍계사(주지 지현 스님)는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2025 쌍계사 차문화대축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쌍계사가 주최하고 (사)진감초의다맥한국선다회가 주관한다.

쌍계사는 통일신라 성덕왕 22년(723)에 개산하고 문성왕 2년(840)에 창건된 천년고찰로, 신라 흥덕왕 3년(828) 대렴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차나무 종자를 처음 심은 차 시배지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한국 차문화의 정통성을 조명하기 위해 매년 차문화대축전을 개최하고 있다.

대축전은 △4월 17일 차나무 시배지에서의 '개원채다' △18일 괘불전 및 팔영루에서의 다도의례 △19일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茶-디카시로 만나다' △20일 차박물관 특설무대에서의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K-어울림 축제'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신라·고려·조선시대의 전통 다도 시연과 선차 시현, 두리차회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펼쳐진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소' 내장사 대웅전 복원 본격화

4월 6일 상량식…올해 말 준공



2021년 3월 방화로 또다시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던 정읍 내장사 대웅전 복원 불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정읍 내장사(주지 대원 스님)는 4월 6일 복원 불사가 진행 중인 대웅보전 건립 부지에서 상량식을 봉행했다.〈사진〉

대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화마를 이겨내고 다시 세워지는 이 도량에서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해 대웅전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내장사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계 팔작지붕 형태로 142.56㎡(43.2평) 규모로 복원될 예정이며,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덕사, 만공선사 탄신 154주년 다례재

4월 4일 경내서…〈경허록〉 〈만공법어집〉 봉정



예산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가 4월 4일 근현대 한국불교의 큰 선지식 만공선사의 탄신 154주년을 맞아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수덕사는 〈경허록〉과 〈만공법어집〉 봉정식도 함께 거행했다.

다례재에는 전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대중들은 산내 암자 금선대, 만공탑 등을 차례로 순례하며 만공선사의 삶과 가르침을 기렸다.

법문에 나선 설정 스님은 "만공선사의 가르침과 수행 정신을 오늘날 우리가 되새기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스님을 가장 잘 모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김해 불인사, 만남·화합 토크콘서트

4월 6일 만남중창단 초청



경남 김해 불인사(주지 송산 스님)가 4월 6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만남·화합 토크콘서트'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 등 4대 종단 성직자들로 구성된 '만남중창단'을 초청해 화합의 메시지를 나누는 자리로 꾸며졌다.

주지 송산 스님은 환영사에서 "봄 향기 가득한 날, 인연 따라 함께한 이 자리가 모두에게 향기롭고 따뜻한 기억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로 만나고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화합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마이산 탑사, 봄 산신대재 봉행

4월 6일 불교전통방식으로



신비의 돌탑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명승으로 지정된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 스님)가 을사년 봄 마이산 산신대재를 봉행했다.〈사진〉

4월 6일 탑사 경내에 마련된 특별법단에서 불교 전통방식으로 열린 산신대재는 전북 무형문화유산 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여법하게 봉행됐다.

주지 진성 스님은 "봄과 가을, 두 차례 봉행되는 산신대재는 단순한 의식을 넘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불교의 지혜가 담긴 전통"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안 승천사, 진연 스님 추모다례

4월 6일 대웅전서



천안 승천사(주지 원공 스님)는 4월 6일 경내 대웅전에서 일학당 진연 스님의 열반 19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다례재는 진연 스님의 수행정신과 가르침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상좌인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스님의 수행정신을 본받아 정진하자"며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은사 일학당 진연 스님의 다례재를 찾아주신 문도 스님들께 감사드린다. 정성껏 준비해 주신 주지스님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통도사 · 양산불교聯, 봉축탑 점등

4월 7일 양산대종 앞서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와 양산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동진 스님)는 4월 7일 양산대종 앞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을 봉행했다.〈사진〉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점등사를 통해 "나라 안팎으로 아픔이 많고 여러 시련도 있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정진해야 한다"라며 "이 등불이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의 빛이, 외로운 이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양산 시민 모두에게 닿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 봉축탑 점등

5.18광장에 수마노석탑 점등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는 4월 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마당에서 '광주 봉축탑 점등식'을 개최하고 한지로 재현한 수마노석탑에 봉축의 등불을 밝혔다.〈사진〉 수마노석탑은 강원도 정암사에 위치한 고려시대 모전석탑으로 사리신앙의 상징이자 불교적 염원을 담은 국보 문화재다.

연합회장 소운 스님은 봉축사에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자비의 빛으로 오셨다"며 "오늘 우리가 밝히는 이 등불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례불교연합회, 봉축탑 점등

문수보살 형상 탑등…군민 안녕 기원



구례불교연합회(회장 덕문 스님, 화엄사 주지)는 4월 5일 화엄사 입구 삼거리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올해 봉축탑은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상을 전통 한지로 재현한 것으로, 구례군과 지역민들에게 지혜와 복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구례 군민들의 지극정성으로 밝히게 된 이 등불은 어리석음을 깨우는 지혜의 등불이자, 세상의 불안을 따뜻하게 감싸는 공감과 연대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 선운사, 봉축탑 점등

4월 6일 선운교육문화회관서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4월 6일 고창 선운교육문화회관 광장에서 자비광명의 불을 밝히는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축사에서 "연등은 평화와 화합, 위로와 나눔을 상징한다. 이웃 모두가 이 등을 보고 위안을 얻고 희망을 찾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자비와 지혜의 빛이 온 세상으로 퍼져, 고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고, 삶에 지친 이들에게는 위안의 빛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창원불교연합회, 봉축탑 점등

4월 5일 시청 앞 광장서



창원불교연합회(회장 법안 스님, 성주사 주지)는 4월 5일 창원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하고 시민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다.〈사진〉

법안 스님은 봉행사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을 깨우쳐 지혜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며 "오늘 우리가 밝히는 이 등불은 자신의 내면을 비추고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지혜의 빛"이라고 말했다.

창원불교연합회는 봉축탑 점등을 시작으로 지역 곳곳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와 포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